

초록번호 24-2

제 목	국 문	대구지역 장애인의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및 건강수준간의 구조분석		
	영 문	Structural Modeling of Health Concern, Health Practice and Health Status of the Disabled in Daegu Cit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기수, 강윤식, 김전엽, 손재희, 이영숙, 감신, 예민해, 천병렬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영 문	Ki-Soo Park, Yeun-Sik Kang, Keon-Yeop Kim, Jae-Hee Son, Young-Sook Lee, Sin Kam, Min-Hae Yeh Byung-Yeol Chun, <i>Dept. of Preventive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i>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박기수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1970년대 이후 선진각국에서 보건의료의 핵심적 개념과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5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연령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장애인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초석으로서 건강관심도와 건강실천행위, 건강수준간의 구조모형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p> <p>2. 연구 방법 가. 조사대상 1997년 4월에서 7월까지 대구시가 실시한 건강진단에 참여한 7,098명을 대상으로 일주일내 2회 연구자들이 건강진단에 참여하여 연구대상자중 3,084명을 설문 조사하여 이중 과거병력에서 없다고 응답한 자중 정신지체 장애인을 제외한 1,662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p> <p>나. 조사방법 및 도구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및 건강수준를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7년 4월부터 7월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훈련된 조사자가 면접시 수정 보완하게 하였다.</p> <p>건강관심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여부,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유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여부를 물어 다시 상, 중, 하로 분류하였고 건강실천행위는 1960년대 Alameda County에서 얻은 7가지 실천행위중 흡연, 음주, 수면, 운동횟수, 식사 등 5가지를 재구성하여 이용하여 설문한 후 다시 조합하여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건강수준으로서는 주관적인 건강수준과 임상적인 건강</p>				

수준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주관적인 건강수준을 단일 문항으로 설문한 후 이용하였고 임상적인 건강수준으로서는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을 이용하였다. 이들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먼저 단변량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수를 재구성하여 구조 모형을 구성하였다.

3. 연구결과

- 1) 건강관심도에서 9.57%가 상으로 응답하였고, 27.88%가 중, 63.06%가 하로 응답하였다. 사회경제적인 변수 중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상태, 의료보장상태, 교육정도가 유의하게 건강관심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 2) 건강실천행위에서는 26.04%가 상으로 응답하였고, 30.80%가 중, 43.16%가 하로 응답하였다. 사회경제적인 변수 중 연령, 성, 결혼유무, 장애영역, 장애등급, 경제적 상태, 의료보장상태, 교육정도 등이 유의하게 건강실천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 3)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13.05%가 상으로 응답하였고, 48.18%가 중, 38.77%가 하로 응답하였다. 사회경제적인 변수 중 연령, 성, 장애영역, 경제적 상태, 의료보장상태, 교육정도, 직업 등이 유의하게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 4) 단변량 분석에서 건강관심도와 건강실천행위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고 남녀로 구분하면 남자의 경우에서 유의하게 관계가 있다. 건강실천행위와 주관적 건강상태간에서도 유의한 관계가 있고 남녀간 구분하여 분석시에도 남녀 공히 같은 결과를 얻었다.
- 5) 건강실천행위와 임상적 건강수준간의 관계에서는 간질환에서 유의하게 관계가 있고 이는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시 남자에게서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임상적 검사수준간의 관계에서는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모두에게서 유의하고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시 남자에게서 고혈압, 간질환에게서 차이가 유의하게 있었다.
- 6) 구조방정식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관심도는 증가하였고 낮아질수록 건강수준은 좋았다. 장애등급에서는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 경제적 상태에서는 잘살수록 건강관심도가 증가하였고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고 건강수준이 좋았다. 의료보장은 보호보다는 보험일수록 건강수준이 좋았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건강관심도가 증가하였다. 직업에서는 직업이 없을수록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였고 있을수록 건강수준이 높았다.
- 7)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였고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할수록 건강수준이 높았다.

4. 고찰

이 연구에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장애인에게서도 다른 연구에서와 같이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실천행위를 많이 하고 건강수준 또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임상적 건강수준으로 살펴본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므로 장애인에게서 장애외에 다른 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건강관심도를 증가시켜 건강실천행위를 많이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